

장흥군 '인구 4만명 회복' 원년

인구청년정책과 신설...기업 유치·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시책 추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균형 최우선 과제로 삼자.”

장흥군이 2023년을 '인구 늘리기 원년'으로 삼고 인구 4만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장흥군은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흥군 인구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 지방소멸 대응팀, 고향사랑팀, 청년지원팀으로 구성했다.

향후 5년 간 장흥군 인구정책의 방향성 확립과

정책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기반 마련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결혼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합리적인 주거지원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

다.

장흥군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정부에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의 규모로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2022년 75억원, 2023년 137억원 총 212억의 예산을 확보해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민선8기 공약사업을 포함한 군의 역점사업의 실현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됐다”며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난해 진행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장성 '내 고장 으뜸마을 만들기' 을 46곳 추가

마을 경관 개선 지원 사업...내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장성군이 20일까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 22개 시군 3000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작년까지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92개 으뜸마을을 조성

했다. 올해에는 46개소의 으뜸마을을 추가 선정해 총 140여 개 마을에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비 5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달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

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마을당 사업비가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면서 “마을 미관 개선과 주민 화합 도모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총무과(061-390-7239)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설 선물은 몸에 좋은 장성産 '레드향'

장성군이 열대과일 레드향(사진)을 출하했다. 모양은 감귤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고 붉은색을 띤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촉진, 동맥경화 예방, 항산화 등의 효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뜻한 제주도나 전남 일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신소득 유망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레드향, 천혜향 등 만감류와 애플망고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레드향은 재배가 까다롭고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꾸준한 기술 지도를 해왔다. 현재 46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품종의 아열대 과수 농사를 짓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조금은 색다른 선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장성 레드향이 제격”이라며 “장성군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장성 레드향 구입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농업기술과(061-390-8433)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달고 과즙 풍부...항산화 성분 장성군로컬푸드직매장서 판매

담양군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교통약자 특별운송 9명 모집...31일까지 원서접수

담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참여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 바우처 택시는 담양군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고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신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쿨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담양군 관내에서만 운영되며, 운

영에 참여할 운송사업자의 인원은 권역별로 정해져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총 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접수는 담양군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에 방문해 담양군 누리집(http://www.damyang.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는 2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061-380-335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함평 장애인 일자리 안전 교육

함평군 함평읍은 지난 17일 오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업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작업장 안전 관리법,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요령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안상만 함평읍장은 “겨울철에 시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의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읍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형(전일제) 2명, 복지형(참여형) 13명 등 총 15명이 참여해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포럼 출범에 '강진 사의재'도 주목



강진읍에 위치한 사의재.

文 정부 인사 정책포럼 '사의재' 다산 정약용 유배지 이름 강진군, 관광 명소 조성중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출범하면서 강진군에 위치한 '사의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포럼 '사의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지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전망이다.

포럼 명칭인 '사의재'는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결정됐다.

강진 사의재(四宜齋)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1801년 강진에 유배됐을 때 머물던 주거지다. 1805년 겨울까지 4년간 머물며 다산은 '내 가지를 울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의재'라고 지었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

게'라는 뜻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아 국가 혁신과 애민, 학문 연구에 정진하겠다는 다산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산이 조선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수많은 저서를 남긴 곳이 사의재이기도 하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이 이곳에서 편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진의 특별한 인연은 강진을 대표하는 꽃 가운데 하나인 '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역사적인 순간을 장식했던 꽃이 바로 강진 작약이다. 두 정상 양옆에 놓인 꽃장식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며 초동학생들로부터 건넨받은 꽃다발, 만찬장 테이블을 화려하게 수놓은 꽃 모두 강진 작약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을 빛낸 조연으로 작약이 사용된 것은 북한의 국화가 '함박꽃나무'로 우리나라 작약의 한 종류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수줍어 보이지만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작약은 '꽃들의 왕'으로 불리며 5월이면 호텔 장식이나 신부 부케로 자주 쓰일 만큼 '환영'의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사의재 명소화를 위해 한옥 체험관, 저택거리 등 주변 시설과 연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 중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전입 청년 주거비 지원

3개월 이상 거주...1년간 월 최대 10만 원

강진군은 타 시군에서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강진포에(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계약한 청년가구에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대 10가구를 선정하며, 신청은 11월 까지 수시로 받는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전입 일자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061-430-3078)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본인 또는 배우자, 동일세대 부모), LH 공공임대주택 주거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농가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30만원 이상 50% 보조...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화순군이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오는 2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기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의 농기계로 구입비의 50%를 보조(300만 원 한도)해주고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을 추가해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추천하고 최종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다음달 14일까지

나주시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전라남도 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 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에는 1만

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에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요건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